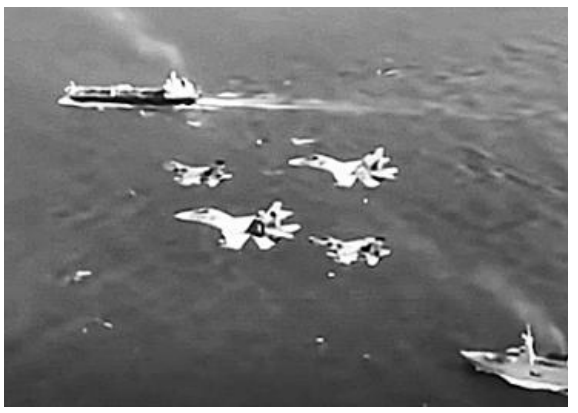
이란·베네수엘라 석유 동맹 지속



▲ 지난 5월, 베네수엘라로 향하는 이란 유조선을 베네수엘라 공군과 해군이 호위하고 있다. 사진=유튜브(알자지라) 화면 캡처

미국의 제재에도 이란과 베네수엘라 간 석유 교역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지난 29일 '뉴시스' 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 27만 배럴을 실은 이란 국적 유조선 포레스트호가 지난 28일 베네수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진입했다. 이란 국적 유조선 팩슨호와 포천호도 베네수엘라 곧 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란 유조선 3척은 모두 82만 배럴 규모의 휘발유 등을 싣고 있다. 이 선박들은 베네수엘라산 중유 190만배럴을 선적한 뒤 이란으로 돌아가 이란 국영석유회사(NIOC)에 납품된다.

이란은 지난 5~6월 4,550만 달러 규모 휘발유를 실은 유조선 5척을 베네수엘라에 급파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돕기 위해서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이지만 정국 혼란과 미국의 제재 등으로 노후화된 정유시설을 정비하지 못해 극심한 연료난을 겪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과 베네수엘라간 석유 교역을 차단하기 위해 앞서 베네수엘라에 휘발유를 운송한 유조선 선장 5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지난 8월에는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이란 유조선 4척을 나포해 석유 111만6,000배럴을 압수하기도 했다.

한편, 이란은 베네수엘라로부터 금괴를 원유 수출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전문매체인 미들이스트모니터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인 야히야 라힘 사파비는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 항공기 편으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테헤란으로 금괴를 옮겼다" 고 설명했다.

'국경 분쟁' 중국·인도, 무인기 도입 경쟁

국경 문제로 대립 중인 중국과 인도가 국경분쟁 중인 서부 고원지대에 투입할 무인기 도입 경쟁에 나섰다. 분쟁지 상당수가 평균 고도 4천m가 넘는 고원지대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군의 동태를 더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할 때 공격까지 할 수 있는 첨단 무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 AR-500C(위)와 MQ-9B 스카이 가디언. 사진=타운뉴스DB

지난 29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국유 업체인 중국항공공업집단이 개발한 AR-500C 기종 시제품이 이틀 전 첫 고원지대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보도했다. AR-500C 무인 헬리콥터는 인도와의 국경 지역에서 물자 운송과 무장 정찰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AR-500C가 현재 중국군이 운용하는 드론보다 더 무거운 화물을 운반하고 오래 비행하며 높게 날 수 있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전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도는 미국에서 첨단 무인공격기 MQ-9B 스카이 가디언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MQ-9B 스카이 가디언은 미국이 지난 1월 이란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제거하는 데 투입한 MQ-9 리퍼(Reaper)의 개량형으로 최첨단 관측·표적 확보장치 등을 토대로 원하는 표적을 '쪽집게식' 으로 골라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

또 현재 보유 중인 8.5m 길이의 이스라엘산 헤론 무인기의 통신 기능 등을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며 아울러 단거리 전략 드론도 자체 제작하고 국경 지역의 드론 격추 방어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인도군과 중국군은 5월 판공호수 난투극, 6월 갈완 계곡 '몽둥이 충돌' , 45년 만에 총기 사용 등 최근 국경 분쟁지 라다크 지역에서 잇따라 충돌했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 통제선(LAC)을 경계로 맞서고 있다.

멕시코, 북한과 대사급 외교관계 복원

▲ 멕시코가 북한 대사의 신임장을 받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복원했다. 사진=오브라도르 멕시코대통령 트위터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던 멕시코가 3년 만에 북한과의 대사급 외교 관계를 공식 복원했다.

지난 30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궁에서 송순룡 북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송 신임 대사는 지난 3월 주멕시코 대사로 임명돼 부임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멕시코 정부가 그동안 신임장 제정식을 미루면서 뒤늦게 신임장을 제정하게 됐다.

멕시코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 전 정권 시절인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국 주재 김형길 전 북한 대사를 전격 추방했다. 당시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사 추방으로 항의를 표시한 것은 유엔 회원국 중 멕시코가 처음이었다. 이후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잇따라 자국 내 북한 대사를 내보냈다.

멕시코는 다만 김 전 대사 추방 이후에도 대사관 폐쇄라는 외교 단절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고, 멕시코시티의 북한 대사관은 인원을 줄인 채 유지돼 왔다. 이후 지난 2018년 멕시코가 좌파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이 점쳐진 바 있으며 이번 신임장 제정으로 양국의 대사급 외교 관계는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서게 됐다.

현재 한국은 115개의 나라에 대사관을, 그리고 46개 도시에 영사관을 두는 등 모두 166개의 재외공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은 47개국에 상주 대사관을 두는 등 총 53개의 재외공관을 운영하고 있다.

REDPOINT REALTY

Since 1978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확실히 도와드립니다. 남가주 전지역

주택,아파트,상가,매매 및 투자상담

미래의 은퇴를 위한 확실한 투자를 소개합니다.

Douglas Moon
Broker Associate
DRE Lic: 00622281

로스 알라미토스
방4 화3 2,590sq 최고학군 위치 동네 인접 프리웨이, 상가, 부엌, 화장실 완전 리모델, 아늑하고 잘 정비된 정원 새집과 같음
$795,000

애나하임 단층집
방3 화2.5 1,751sq 최고학군 좋은동네 넓은 뒷마당, 많은 과일나무, 교통편리 공원, 상가, 차고뒤에 방, 화장실 있음 인컴 창출 포텐셜
$735,000

* 로스 알라미토스: 방3, 화1¾, 1217sq, 넓은대지, 리빙룸, 최고 학군, 인접 샤핑 교회, 공원, RV파킹 가능함 $739,000
* 싸이 프레스: 방4 화3 2,250sq, 최상의 학군, 부엌 업그레이드, 넓은공간과 천장 Walk in Closet, 큰 보너스룸, 이중 창문, 인접 상가, 교통 편리 and much more $899,000
* 로스 알라미토스: 방3 화2, 1,504sq, 타운홈, 많은 업그레이드, 넓은 매스터 룸 스텐레스 주방, 최상의 학군, 조용하고 편리한 위치 $698,000
* 오렌지: 방5 화3, 2,700sq, 애나하임 힐과 가까운곳, 최상의 거주 지역 산근처 하이킹, 좋은학군, 학교, 도서관, 공원, 상가, 교통편함 $1,200,000
* 애나하임: 3유닛, 독립 차고, 방2 화1, 그밖 1/1 유닛 포텐샬 굿, 오너가 살 수 있음 은퇴 투자용 최적, 다운타운 가까움 $775,000
* 애나하임: 2유닛, 독립차고, 각 방2 화1 은퇴 투자용 적합, 독립된 그라지 인컴 굿 $695,000
* 싼타애나: 3유닛, 부엌 업그레이드, 1유닛 방5 화2, 3유닛 1/1 지하실 리모델 했음 $820,000

그밖에 많은 주택 그리고 좋은 수입을 창출하는 적은 유닛과 아파트가 있습니다.

714.336.1983 dmoon4989@gmail.com